

여성,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3·8 세계여성의 날' 111주년 기념 행사 잇따라

광주여성재단 4월까지 이주여성 '유리병의 편지' 전
광주·전남 여성대회 8일 민주광장...극장가도 '여풍'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을 표현하는 빵과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거리행진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세계 여성의 날' (3월8일) 111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와 전시가 잇따르고 여성을 극 중심에 내세운 영화가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주여성 전시·여성의 날 행사
광주여성재단(동구 호남동) 8층 전시관에서는 오는 4월30일까지 기획전 '유리병의 편지'가 진행된다. 재단의 기획전시 공모에서 선정된 자우녕(본명 김현숙) 작가는 이 전시를 통해 이주여성의 애환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조명하고 있다. 작가는 지난 2007년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당시 19살)의 유서를 중심으로 전시를 꾸렸다. 후안마이가 남긴 5장의 유서는 영상 '후안마이의 편지'로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을 다룬 '팅빈 풍경', 터키의 가부장제와 민족주의 폭력을 고발한 '페스티벌', 입국 심사용 서류 모음집을 작품화해 실질적인 국경을 되묻는 '국경의 높이', 설치작품 '핀타스틱 하우스' 등이 전시장을 채웠다.

프랑스 마르세유 조형예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우녕 작가는 '이주', '여성' 등을 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아트센터 나비 전시를 열고 다큐멘터리 '날아가는 학선이 구름 밑의 신선'

아' (2005), '이주의 시대' (2010) 등을 제작했다. 문의 062-670-053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는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광주전남 여성대회'를 연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시민단체와 본대회 등으로 꾸며진다.

◇스크린에 부는 '여풍'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하고 있다.

3·1절 연휴 동안 박스오피스 1위는 내내 '항가: 유관순 이야기' (감독 조민호) 몫이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달 말 개봉한 뒤 83만5165명을 모으며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영화는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운동 이후 고향인 충남 병천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 감옥에 갇힌 뒤 1년 여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옥사 8호실' 여성들의 이야기도 그려냈다. 12세 이상 관람가.

2015년 영화 '뚝'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브리 라슨이 주연을 맡은 '캡틴 마블' (감독 애너 보든 등)은 6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량이 37만장을 넘어섰다. 이 영화는 5일 오후 5시 기준 예매율 88%, 예매 관객 수 37만323명을 기록하며 10일째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12세



광주여성재단 자우녕 작가 초대전 '유리병의 편지'가 오는 4월30일까지 열린다.



영화 '항가: 유관순 이야기'

이상 관람가.

이외 3만 관객 초읽기에 들어간 다큐 '칠곡 가시나들'과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올리비아 콜

먼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더 와이프', 다음달 개봉하는 '폴레트'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는 신명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진도토요민속여행' (토요민속여행)이다. 지난 1997년 첫선을 보였으니 햇수로 22년이나 됐다.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817회 공연에 34만 여명이 다녀간 '스테디셀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의 별 전통자원' 부문에도 선정됐다.

토요민속여행이 흥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역성'이다. 독특한 진도의 민속·민요를 알리기 위해 진도군과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진도아리랑, 유명 국악인 초청, 씨김굿, 다시래기 등 차별화된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객석에서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공연에서 벗

는 장르 공연을 진행해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은은한 달빛과 아름다운 한옥이 어우러져 전주한옥마을을 상징하는 전국구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악상설공연이 지난 2일 광주 서구 광주 공연마루(옛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 첫선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상설공연이 공론화된 이후 5개월 만이다. 국악상설공연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보여 주듯 180여 개의 좌석은 전석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의 '부채춤'을 시작으로 단막창극 심정가 중 '심봉사 황성 가는 길', 가야금 병창 등

'2% 부족한' 광주 국악상설공연

어나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강강술래 함께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곁들여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진도군은 국내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다. 강강술래·남도들노래·씨김굿·다시래기·진도북놀이 등이 숨쉬고 있는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다. 토요민속여행이 수십 년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런 진도 특유의 '색깔'을 오롯이 담고 있어서다.

전주문화재단의 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와 한옥마을 마당놀이 '놀부가 됐다!'는 근래 부상하고 있는 상설공연의 신흥강자다. 매년 5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무대에 오르는 두개의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 유독 인기가 많다.

이들 공연의 특징은 전주의 판소리와 한옥을 접목시켜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는 점이다. 평일에는 마당놀이, 주말에는 마당창극이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광주시는 오는 9일 국악단체 '창작국악단 도드리', 16일 시립창극단, 23일 시립국악관현악단, 30일 '굿패 마루' 등 8개 시립예술단의 플라보와 지역단체들의 순번제 공연으로 무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악상설공연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광주에 서만 볼 수 있는 지역성 확보다. 지금처럼 시립예술단의 갈라소나 예술단체의 레퍼토리 위주로 라인업을 짜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콘텐츠로 는 일시적인 '버프' (buff) 효과를 있을 지언정 광주만의 '이야기'를 기대한 관객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얻기 힘들다. 진도나 전주에선 느낄 수 없는, '온리 원' (only one) 불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자본이 神인 사회서 소외당한 삶들

김용매 소설집 '푸줏간 남자'

자본주의 물신화나 그로 인한 시대적 모순과 병리 양상은 현실에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소설가들에게는 중요한 테마다. 삶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자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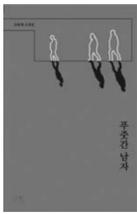
김용매 작가가 펴낸 첫 소설집 '푸줏간 남자' (문학들)는 물신화의 양상을 주요 모티프로 차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 존재들이다. '자본이 신'으로 숭배 받는 사회로부터 상치받고 소외당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굴곡진 삶을 산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장이 돼

생계를 꾸려 나가는 '병리 가족'의 혜숙과 그녀의 딸 미진의 삶이 대표적이다. 작품은 병리적인 가족들과 구성원들의 슬픈 군상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찌푸리게 보여준다.

"한 조사가구 대략 70가구가 되는데 삼대가 사는 집은 한두 가구에 불과했다. 편부모 가정과 1인 가구와 가족이 아닌 남남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상당히 많았다. 장년층의 남녀가 가족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결혼 풍속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원으로서 나서게 된 혜숙이 찾아간 곳은 빈민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다. 혜숙은 그곳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겹게 사는 이들을 만난다. 최근의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무관치 않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아파트 정자에서 낫부터 남자들과 술판을 벌이는 빨간 입술의 여자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방에 가두어 놓고 방치했다.

이러한 병리적인 삶은 표제작 '푸줏간 남자'를 비롯해 '잠복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옹고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그것 또한 삶이며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의미일 터다.

한편 김용매 작가는 '작가' 신인상과 지역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현재 풍암고에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물관 숲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9~10월 12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박물관 정원을 거닐며 숲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인 '2019 박물관 숲 이야기'를 9일부터 10월12일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한다.

숲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숲 해설이 곁들여진다. 아울러 오감으로 관찰하기, 놀이, 만들기, 전시 관람 등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3월은 '봄이 차오른다', 4월에는 '벚꽃 날리고 초목이 물들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570-70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까지 '2019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국악체험은 1박 2일과 당일 체험 과정으로 나뉜다. 1박 2일 과정에서는 전남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국악공연 관람과 국악배우기(강강술래 등), 남도문화탐방 등을 하고 당일 과정은 전국 모든 청소년들이 공연관람 및 민속놀이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1박 2일 과정은 회당 40명, 당일체험은 회당 300명 이하이다. 전국의 학교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체험 참가비는 무료다.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내면 된다. 문의 061-540-403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